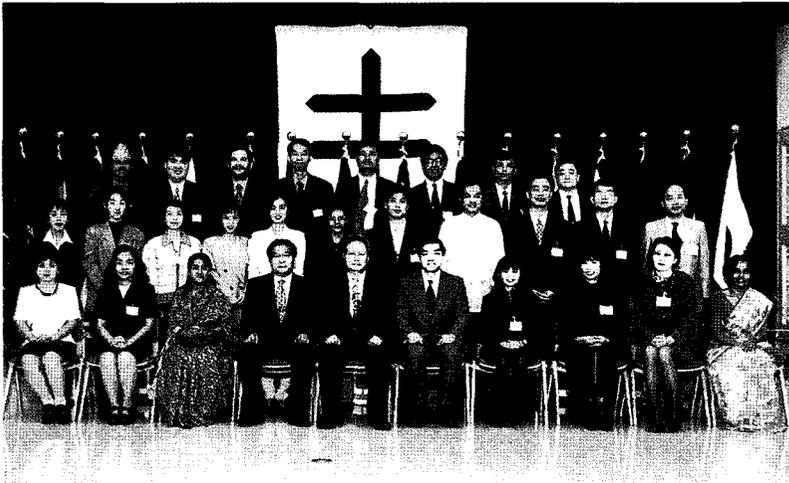


# 국제에이즈 연수과정 참관기

이상은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무국



■개회식 후의 단체사진

**“에이즈** 예방과 간호를 위한 제5회 국제연수과정”(5th International Course on AIDS Prevention and Care)은 1994년도부터 시작된 동남아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에이즈예방재단이 주관하고 일본 후생성과 결핵연구소가 후원하는 국제에이즈연수과정이다. 연수의 주 목적은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HIV/AIDS의 예방을 위해 동남아 각국의 정부와 연구소, NGO,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교육시켜 이들이 교육 후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동하고 주위의 직장 동료들과 협력단체들에게도 배운 지식을 퍼뜨려주어 효율적인 에이즈 예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또한 각국의 에이즈 전문가들이 함께 배우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AIDS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연수의 목적이다.

사실 집중적인 6주 코스의 전기간을 함께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우리 참가자들은 단지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아는 차원의 관계를 넘어서 매우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부분은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처음 연수과정에 후보자로 추천 받았을 때 나는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섰다. 6주간 아내를 홀로 남겨두어야 하고 낯선 땅에서 낯선 음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했다.(채식주의자이므로 낯선 이국땅에선 항상 음식문제로 곤란을 당함).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담이 되었던 것은 “동남아 각국의 에이즈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에이즈분야의 경험이 아직 얼마 되지 않는 내가 과연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다. 처음 추천을 받았을 때 -그 때가 98년 9월이었을 것이다- 나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근무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AIDS에 대해서도 그리 아는 것이 많지 않았었다. 이러한 걱정으로 나는 후보자 심사과정중의 하나인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에이즈예방재단의 국제협력과장인 Dr. Swazaki에게 나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코스 참가 후보자의 심사 기준은 일반적인 나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었다. 에이즈 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갖고 있거나 에이즈 관련 국제연수나 회의에 참가한 경험이 많은 후보자는 심사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다. 에이즈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에게 기초지식을 보다 굳건히 하게 하고 에이즈예방사업에 대한 동기와 사명감을 주기 위한 것도 국제에이즈연수과정의 여러 목적중 하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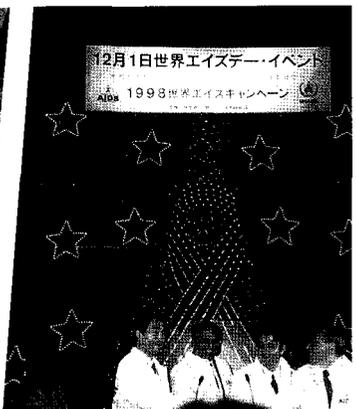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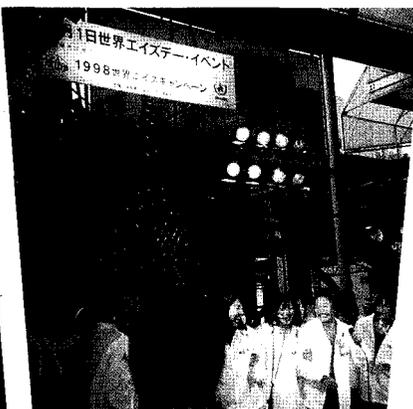
심사 및 선발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렸다. 주로 동남아의 개발도상국가 중 에이즈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의 참가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중국 등의 참가자가 먼저 선발됐고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는 심사의 맨 막바지에 선발되었다. 총 21명의 코스 참가자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10월초였다. 11월 2일 코스의 시작을 앞두고 나는 일상 협회의 업무를 볼분

코스 준비를 위해서도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협회차원에서는 상담요원교육과 임상병리사교육 일정이 10월에 잡혀 있었고 서울시중·고등학교 패럴 순회진사회는 중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연수과정중에 발표할 Country Report를 작성해야 했다. 10월 한 달을 정신없이 보내고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에야 비로소 국제연수코스에 참가한다는 실감이 들었다.

나리타 공항에 내려 숙소로 가는 도중 일본의 도로교통상황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일본의 도로는 대부분 60년대에 건설되어 폭이 좁았고 교통량은 증가하여 도로정체가 심했지만 일본의 운전기사들은 어느 누구도 난폭운전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담담할 정도로 침착하고 주의깊게 운전하였다. 서울의 교통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승강장, 엘리베이터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

서 질서있게 행동하는 일본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침착하고 질서있는 생활양식이 정부나 민간단체의 에이즈 예방사업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였다. 코스가 시작되면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에이즈 예방정책과 프로그램, 시민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지도, 현황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1월 3일의 오리엔테이션과 4일의 개회식을 시작으로하여 본격적인 본 코스에 들어갔다. 숙박은 일본 결핵연구소의 기숙사에서 제공됐지만 식사문제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배경으로 하는 모든 참가자들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힘이 들었는지 주방과 주방기구를 제공하여 각자 요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다. 사실 참가자들의 종교, 문화적 배경은 힌두, 모슬람, 불교, 카톨릭 등 다양하였고 힌두와 불교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은 대부분 채식주의자들이었다. 채식주의자인 나로서는 무척 반가운



■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와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가든은 붉은 리본의 종려수

소식이었지만 다른 참가자에게는 한가지 짐이 더 늘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매일 시장에 가서 부식 거리를 사서 요리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6주 동안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나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매일매일의 저녁 식사시간은 낯선 외국땅에서 제 2의 국어로 강의를 들으며 생기는 모든 긴장감을 해소하는 최적의 시간이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각 나라의 풍습과 가족과 신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부담없이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인도에서 온 한 참가자는 나와 같은 채식주의자여서 우리는 자주 음식을 서로 나누었는데 그녀는 나의 김밥요리를 무척 좋아하였다.

코스의 첫 과목은 기초역학(Basis Epidemiology)이었다. 의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던 나로서는 생소한 용어들과 이론 속에서 수업을 따라가느라 무척 고생하였다. 사실 애플을 먹은 것은 나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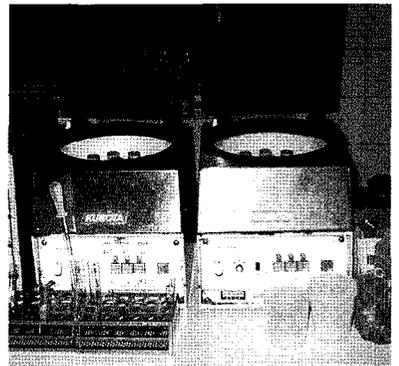


■결핵 연구소장 모리안 훈에게한 협회 0 상은 주안(오른쪽)

이 아니었다. 의학적인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NGO 참가자들은 모두 기초역학에서 큰 고생을 하였다. 우리들은 기초역학을 “에피몬스터(epi monster)”라 불렀다.

의사 출신의 참가자들을 졸졸 따라 다니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문하고 며칠밤을 밤늦게까지 복습을 한 후에야 “odd ratio”, “sensitivity”, “specificity” 등의 값을 구하는 온갖 수학기초식을 이해했고, 비로소 전체적인 기초역학의 윤곽과 “Case-Control Study” 등의 연구조사방법도 이해하게 되었다. 일반 선입견과는 달리 사실 기초역학은 무척 매력적인 학문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수업의 구성이 주로 Surveillance(역학조사)와 Case-control Study의 디자인 방법과 연구결과의 분석에만 치중했지 분석된 결과를 통한 예방프로그램 개발 수립전략은 부족했다. 주로 대외 홍보 교육사업을 하는 NGO참가자들에게는 다소 불만족스러운 수업구성이었지만 나의 선입견과는 달리 전염병학이 매우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나에게서는 커다란 수확이었다.

코스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상담기법과 HIV/AIDS의 임상증상, 히로시마 대학과 교토 바이러스연구소의 필드트립, PAR(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CM Method(Project Cycle Management) 등의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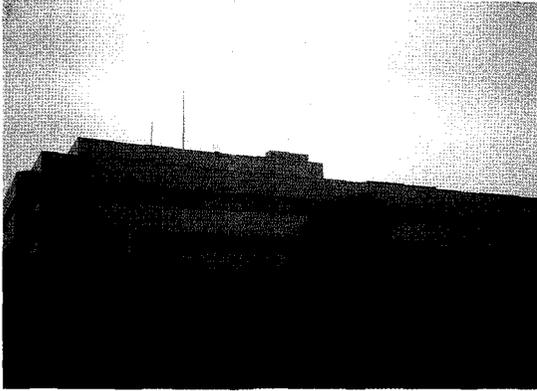


■히로시마대학 임상병리과 FV검사기구

홍비로운 조사기법도 배우게 되었다. 단지 수업 내용만 재미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업진행방법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연습문제들은 매우 효과적인 교수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코스의 후반기에는 태국의 “100%콘돔사용사업”의 고안자이자 실행자인 Dr.Wiwat의 “태국의 HIV/AIDS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인상적이었다. 그의 강의는 무척 흥미롭고 유모스러워서 강의실을 매 1분마다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의 “100%콘돔사용사업”은 정부와 윤락업종사자와 포주들이 담합하여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었다. 이 날은 전세계적으로 일반인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지도와 경각심을 높이고 에이즈로 사망한 모든 사람을 추모하고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헌신하는 모든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다.

일본의 에이즈의 날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축제 분위기 속



■ 일본 결핵연구소 전경



■ 경북대의 에이즈 연구소

에서 TV쇼를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행사장소는 동경시내의 가장 큰 다운타운인 신주꾸역 구내였다. 행사진행 역시 인기연예인이 MC로 나와 재미있게 진행하였고 신주꾸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호응을 받았다.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일본 NHK의 뉴스팀이 나와 현장을 취재해 갔고 TV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일본 후생성과 에이즈예방재단이 공동으로 행사의 주관을 맡았지만 주로 후생성이 적극적으로 행사의 기획과 실행, 예산지원을 한 것 같았다. 주로 NGO단체가 주최가 되어 행사진행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코스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우리들은 “Action Plan” 발표 준비에 분주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후 자신의 영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바로 “Action Plan”의 내용이였다. 사실

“Action Plan” 준비는 코스의 중반기부터 시작했다. 초안과 2안을 이미 제출했고 지도교수의 조언속에 세부내용을 수정해 가며 마지막 발표를 준비했다. “Action Plan” Presentation은 여러 지도교수들과 WHO 아태지역의 대표, 에이즈예방재단과 결핵연구소의 담당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심사, 평가하는 긴장되는 발표회였다. 20분의 발표와 10분의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고 3일 동안 모든 참가자들이 발표했고 서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아주 내서울만치 예리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지도교수인 Dr.Simouchi는 단지 발표내용뿐만 아니라 발표기교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적당한 돈이라든가 시간배정법, 시선처리, 주의를 끄는 방법 등에 대해 세세히 설명해 주었다. 마치 우리가 귀국후 앞으로 직장상사나 동료들앞에서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긴장되던 “Action Plan” 발표도 끝나고 우리는 마지막 코스평가에 들어갔다. 평가는 국제연수과정의 커리큘럼에서부터 코스진행방식, 기숙사생활까지 자세하게 진행되었다. 커리큘럼에 약간 문제가 있긴 하였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사실, 이번 코스의 진행을 위해 주최측이 배려한 호의와 진행요원들의 노력은 정말 현신적이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환경에서 온 총 15개국 21명의 참가자들이 6주간의 기간동안 아무런 불편이나 불만없이 모두 건강히 코스를 수료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에이즈예방과 간호를 위한 제5회 국제연수과정” (5th International Course on AIDS Prevention and Care)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일본의 모든 선생님과 진행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A